

쿠팡, 로켓배송 거점될 '김천첨단FC' 짓는다... 1000억 투입

(물류센터)

내년 9월 준공... 연면적 9600만평
경북도·김천시 일대 '로켓배송' 확대
500여명 고용... 청년고용 증대효과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력

쿠팡이 경상북도 김천시에 김천첨단물류센터(FC)를 착공한다. 물류센터가 완공되면 500명 이상의 직고용 창출을 비롯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쿠팡은 7일 오후 경상북도 김천시 어모면에 위치한 김천1일반산업단지에서 김천첨단물류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중섭 김천시장,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시), 박대준 쿠팡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7일 열린 쿠팡 김천첨단물류센터 착공식에 참석한 김중섭 김천시장, 박대준 쿠팡 대표, 송언석 국회의원(왼쪽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쿠팡

이번에 착공한 김천첨단물류센터는 내년 9월 준공 예정으로, 총 투자금 1000억원 이상을 들여 연면적 약 9600

평 규모로 짓는다. 이를 통해 경상북도 및 김천시 일대 '로켓배송' 거점으로 활용 계획이다. 쿠팡은 지난 2020년 경

상북도 및 김천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번에 착공에 들어갔다.

김천첨단물류센터는 500여명을 직접 고용할 예정으로 특히 청년고용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이외에도 물류센터 건립 및 운영을 통한 지역 내수 확대, 전국 단위로의 판로 확보를 통한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경북 및 김천 지역의 로켓배송 권역 확대로 주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중섭 김천시장은 "쿠팡의 김천첨단물류센터 착공을 축하드리며, 물류센터 건립이 지역경제에 일자리 창출 등의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물류센터의 정상 운영을 위해 다각적인 행정적 지원을 약속 드

린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회의원은 "김천시민과 함께 노력해 온 물류센터 투자 유치 결실을 맺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쿠팡의 대규모 물류센터 투자로 인한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성장은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김천지역의 비약적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김천첨단물류센터가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송언석 국회의원님, 김중섭 김천시장님과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함께 성장하는 모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서울시, 준공업지역 규제 대폭 손질

'미래첨단산업' 공간으로 탈바꿈
공동주택 건립 시 최대용적률
현행 250% 이하 → 400% 확대

서울시가 제조업 중심지를 직·주·락(職·住·樂)이 어우러진 '미래첨단산업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준공업지역의 규제를 푼다.

서울시는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준공업지역은 1960~70년대 소비·제조산업 중심지로 과거 국가 성장을 주도했으나 현재는 낙후되고 침체된 곳들이 대부분이다. 서울 영등포·구로·금천·강서·도봉·성동구 등에 총 19.97㎢ 규모의 준공업지역이 지정돼 있다.

우선 시는 기존 전략재생형, 산업재생형, 주거재생형, 산업단지재생형으로 나뉜 준공업지역의 복잡한 정비 유형을 산업복합형(공장 비율 10% 이

상)과 주거복합형(공장 비율 10% 미만)으로 재편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면적에 관계없이 사업 주체가 개발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이전에는 공장 비율 10% 이상 부지에 공동주택을 지을 때 1만㎡ 이상은 산업 부지와 공동주택 부지를 엄격히 분리하는 부지분할 방식으로, 3000㎡ 이상~1만㎡ 미만 부지는 산업·주거 복합건물 방식으로만 개발이 가능했다.

또 시는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부지 3000㎡ 이상 대상) 수립 시 최대 용적률을 현행 250% 이하에서 400%까지 높이는 등 규제를 대폭 풀어 사업성을 개선했다.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150%는 기존 공공시설 기부채납은 물론 공공임대주택 공급,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 항목까지 적용 가능하도록 다

양화한다.

기준·허용용적률도 현행 210%, 230%에서 230%, 250%로 각각 20%p씩 올린다. 상향 조정된 허용용적률 20%p는 공공보행통로, 열린단지 등 '개발사업형(공동주택 건립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에서 정한 항목을 적용한다.

아울러 시는 산업 기반 확보를 위해 준공업지역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 이용 현황과 계획을 고려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용도지역을 유연하게 조정·운용할 방침이다.

시는 "대상지는 중심지 기능 고도화를 위해 업무 등 고밀 개발이 필요한 지역과 이미 주거화 돼 산업 기능을 상실한 지역이다"며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세울 때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병행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hjk1@

서울시교육청

사립초등학교 38곳

신입생 원서접수 실시

서울시교육청은 8일부터 16일까지 서울시내 38개 사립초등학교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한 원서접수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사립초 신입생 모집은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통합 전산 사이트에서 동시에 이뤄진다. 원서 접수는 진학 어플라이 사이트를 통해 8일 금요일 9시부터 13일 수요일 16시 30분까지 24시간 가능하다.

사이트에 접속한 뒤 ▲초·중·고교 바로가기 클릭 ▲2025학년도 공동원서접수 '서울특별시 사립초등학교' 클릭 후 원서접수를 하면 된다.

신입생 입학추첨은 38개 사립초등학교에서 18일 10시 동시에 이뤄지며, 자세한 추첨 방법은 당해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현진 기자 lhj@

김포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진행

5개사 참가... 133명 인원 채용 목표

김포시는 지난 5일 김포시민회관 3층 다목적홀에서 제6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김포시 구인·구직 만남의 날은 구인 기업과 취업희망자를 직접 연계하는 채용행사로 구인기업에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면 누구나 방문해 참여 가능하다.

이날 만남의 날에는 5개 기업이 참가해 조리사, 운전직, 특수경비, 생산, 물류 등 다양한 직종에 133명의 인원 채용을 목표로 1:1 현장면접을 진행했으며 구직자 총 63명이 면접에 참여했다.

채용행사 외에도 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경력단절여성 구직상담,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 서민금융지원센터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 등을 진행해 행사에 참여한 구직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채용 컨설팅을 실시하여 참가자



지난 5일 김포시민회관 3층에서 열린 '제6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에 참석한 기업체와 구직자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김포시

들의 구직활동을 도왔다.

아울러 김포시일자리센터에서는 이번 달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관내 청년 구직자 대상 '채용서류 및 면접준비 취업 필수전략'을 주제로 한 멘토링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통합일자리정보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휘중 기자 yhj@



반일행동, 한국대학생진보연맹 회원들이 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11·3 학생의 날 대 학생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을 규탄하고 있다. /뉴스1

대학교수, '尹 대통령 하야' 시국선언 동참

가천대, 한국외대, 숙명여대 등부터
'국립' 인천대, 충남대 교수들 참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이 연일 불거지며 김건희 여사 특검과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대학 사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지난달 28일 가천대를 시작으로, 한국외국어대, 숙명여대, 한양대, 가천대, 전남대 등으로 퍼지고 있다. 충남대 교수들도 7일 윤석열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7일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회(민교협) 충남대분회에 따르면, 충남대 교수 80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하야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교수들은 시국선언에서 "대통령 부인 등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사람들이

무능한 대통령 머리 위에서 국정 간섭을 해왔다는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라며 "대한민국 미래와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6일에는 인천대 교수들이 국립대로는 처음으로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 교수들은 6일 인천 연수구 인천대 송도 캠퍼스에서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전하는 인천대학교 교수 일동' 명의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국가와 민족에 대한 최고 공직자로서 마지막 봉사라 생각하고, 본인이 결단해 즉각 하야하라"고 촉구했다.

대학생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3일 '학생의 날(학생독립운동 기념일)'을 맞아 반일행동과 한국대학생진보연맹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건희 정권 탄핵하자'는 팻말을 들고 시국선언을 했다.

/이현진 기자 lhj@

서울시, 시흥동 등 3곳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도시계획위원회, 시흥1·상계·온수동 통과

서울시는 이달 6일 열린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흥1동 871번지 일대, 상계동 154-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온수동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안과 경관심의안 등 3건이 수정 가결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정비계획안 가결에 따라 금천구 시흥1동 871번지 일대는 45층 이하, 16

개 동, 총 2072세대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 제1종·제2종(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이 제2종(7층 이하)·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각각 상향됐다.

이번에 가결된 세 안건은 서울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사업성 개선 방안을 적용한 첫 사례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재건축·재개발이 지지부진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용적률 산정시 보정계수를 적용해 사업성을 높여주겠다고 발표했다.

/김현정 기자